

나주지역 일자리 연내 500개 창출

남양유업 유가공 공장·콜센터 인력 등 지역민 우선 채용...고용시장 활기 띠듯

나주지역에서 오는 12월까지 최대 5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어서 공공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 채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나주시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유가공 공장이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11월중에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다.

채용 규모는 1차로 약 100여명을 뽑을 계획이며 공장 준공에 맞춰 100여명 안팎을 추가로 뽑을 방침이어서 채용 규모가 2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달 초 나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엘보이스 콜센터 역시 다음 달 중 100명의 근무인력을 뽑을 예정이

다.

엘보이스 콜센터는 LG파워콤 인터넷망 가입안내 및 판매활동을 하게 되는데, 콜센터의 경제적 효과는 연 18억원의 직접소득 발생과 함께 나주시 구 도심권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송월동에 대규모 판매 및 위탁파크 시설을 11월 중에 오픈하는 (주)삼한지도 200여명 규모의 인력 채용 설명회를 개최기로 했다.

나주지역은 내년에도 임대산업단지 자와 지방산업단지, 문평농공단지 등

에 기업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고용규모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나주시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투명한 채용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과감한 재정 지원 및 인력채용설명회 등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주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수확기 벼 안정성 분석

보성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말까지 총 50 필지를 대상으로 수확기 벼 시료를 채취해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번 분석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른 것으로 잔류 농약검사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지원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안정성 분석결과 부적합으로 통보 받은 경우 변동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의(061-852-2641)

/보성=안구일기자 gjahn@



논은 땅 무·배추 파종

보성군 보성읍사무소(읍장 박성순) 공무원들과 자활근로자들이 최근 쾌성리 일대 유희농지 991.74㎡에 무와 배추를 직접 파종했다. 보성읍사무소는 보성을 여성자원봉사(회장 장숙자) 회원들과 함께 매년 유희농지에서 수확한 무와 배추로 김장을 담가 장애우와 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주고 있다.

보성군 보성읍사무소(읍장 박성순) 공무원들과 자활근로자들이 최근 쾌성리 일대 유희농지 991.74㎡에 무와 배추를 직접 파종했다. 보성읍사무소는 보성을 여성자원봉사(회장 장숙자) 회원들과 함께 매년 유희농지에서 수확한 무와 배추로 김장을 담가 장애우와 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주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천연염색 제품 브랜드 '나주 손' 특허출원

천연 염색 제품의 브랜드인 '나주 손'이 특허 출원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 기관인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관장 장흥기)은 나주시 다시면 천연염색 체험관에서 13일부터 오는 10월14일까지 '나주 손 창립전'을 열고 있다. (사진)

나주 손은 노동부 고용창출 사업에 따라 천연염색을 배운 교육생들이 주축이 돼 특허청에 출원한 수공예품에 대한 상표. 나주지역 특화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천연 염색의 브랜드가 출원돼 전통공예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창립전에서는 '꽃반지 끼고'를 불렀던 가수 출신으로 현재 천연염색업체 '봄데강'을 운영중인 김은희씨의 작품을 비롯해 동신대학교 이상필 교수, 한국천연염색연합회 황수환 회장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신안군 국유지 임대 특혜의혹

자동리 논 3만여㎡ 박모씨 수의계약 경작 임대계약 끝나다 방치 수리시설비 지원도

신안군이 수년간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국유지를 임대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64)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086-11번지 일대 국유지 10필지 3만 4천208㎡를 군과 수의계약을 통해 벼 농사를 경작해왔다. 그러나 국유지 재산은 경쟁 입찰로 규정돼 있다.

박씨는 더욱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무단으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군은 방치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 95년부터 박씨가 140㎡ 규모의 벼 건조기를 불법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수수 방관해오다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에야 뒤늦게 철거 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박씨는 지난 81년부터 또 다른 지도읍 자동리 국유지 20만1천여㎡를 임대 계약도 맺지 않은 채 10여년간 불법 경작했으며 농

로를 불법 훼손해 방앗간까지 신축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단속에 나서기는 커녕 수리시설비와 지하수 시공 비용을 지원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집단 진정에 따라 32.5㎡의 밭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한편 박씨는 연간 임대료로 90~130만원을 군에 납부하고 40kg들이 500여 포대를 생산해 2천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50여만원의 쌀 소득 보전직불제 보상금까지 수령했다.

/신안=조원필기자 wncho@

화순천 자연생태하천 거듭난다

벽라고~백동교 4.5km 구간 조성사업 60% 공정을 보여

화순읍내를 통과하는 화순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

화순군은 지난해 벽라고에서 백동교까지 4.5km 구간의 자연생태하천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화순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고수부지 내 기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철거한 뒤 자연석으로 호안을 시공하고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지압로를 조성한다.

또 좌·우 호안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도 설치되며 물고기 이동통로



인 어도와 하천 가운데에 섬 모양의 어류 서식처도 들어선다.

호안 주변에는 다양한 수질정화 식물이 식재돼 아름다운 수변으로 개관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하천 자정능력 향상으로 생태적 기능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함평 '경로건강대학' 인기 65세이상 71명 13기 개강

함평군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13기 경로 건강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함평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의 건강증진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01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로 건강대학을 개설, 현재까지 12기생 7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김진과 장흥군 통합' 공론화하자

김진과 장흥군은 전국에서도 손 꼽히는 나주지역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낙후도 평가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220위와 22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 잠재력과 경제력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도토리 키재기'인 셈이다.

현재 장흥군과 김진군 인구는

며 출산율 높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증가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흥과 김진을 하나로 합쳐야 양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통합론'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여수·순천·광양'의 통합 선언에서 더욱

'강진·장흥군 통합' 공론화하자

4만3천800명과 4만2천명으로 양지역을 합쳐 봐야 8만5천여 명 정도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4.5%를 넘어섰으며 농·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기반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주민들이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의 자존심은 잊혀진지 오래다.

머지않아 공무원들만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진군은 세계 아이를 낳으면 3년간 총 750만원을 지원하겠다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황주홍 김진군수 등 양 지역 단체장들이 박준영 도지사에 공동혁신도시 유치 문제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제시한 전례도 있다.

그동안 일부 계층의 거부감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양 지역이 통합을 통해 활력과 경쟁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kykim@kwangju.co.kr



김용기

<사회2부 장흥주재>

황주생선구이문화재단

바라이야스기

자연부 리더가 **맛있고 담백한 맛!** 배나야스기 배사 구이 드림서빙

- 특선코스메뉴
 - 생선구이, 보쌈, 냉면, 새우튀김, 갈비찜
 - 김치, 떡볶이, 보쌈생선구이, 생선죽, 떡볶이
- 민어회와 각종활어회
- 생선구이와 조림
- 점심특선
 - 생선구이, 떡볶이, 새우튀김, 갈비찜
 - 떡볶이

예약전화 TEL. (062)971-9285

첨단 호텔미드 컷팅 주차장 임쿠 원근호이강생선 서빙

10.28 공인중개사 합격

최종문제풀이 특강

16주 완성

개강 9.10

"대일 배심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통해 최종 합격 필드"

광주고시학원

문의 237-8009

실문집 971-33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개강 9월 3일

www.kjg.ac.kr

문의 361-6111

문의 529-8111